



[의료진 폭행에 대한 단상]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환자 진료에 애쓰시던 분이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어이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진료에 대한 열정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해 알게 되니 더 한층 아쉬움이 남는다. 진료실 폭행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 그 해결책을 두고 말들이 많다. 농담같은 진담으로 보건복지부 회의에서는 진료실에 뿌리는 파스를 비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병원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자고 한다. 처벌이 약하니 입법을 통해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해결책을 보면서 아쉽게 생각되는 점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려 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에 대한 임시방편식 해법만 제시하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은 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고 실제 여러 번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폭행 건수가 줄었다거나 진료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효과가 있었다면 금번의 참사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자신을 치료해 주는 의사를 환자가 공격할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다. 폭언이나 폭행은 빈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료과에 상관없이 발생한다.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폭행은 지금까지 비뇨기과와 응급실에서 발생하였고,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생하였다.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단정 짓기 어렵지만 이러한 과에서 다루는 환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존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이나 심리 상태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기능에 대한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의 환자는 커다란 상실감을 가지게 되어 마음이 불안하다. 애초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돌발적인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막기가 어렵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그에 필요한 매뉴얼을 가져야 한다. 의사-환자가 일대일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력이 반드시 동석하도록 한다던가, 진료실 문을 열어 두어 진료실의 상황이 금새 파악되도록 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하여 보안팀에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자가 손님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써서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기승전 수가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환자



LK PARTNERS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의료진이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의료선진국이라는 기치에 걸맞은 진료환경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장 쉬운 입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권 대표 변호사/의사

TEL. 02 565 9801

E-mail. kklee@lkpartner.co.kr